

## 望診 察色에 있어서 鼻, 眼, 印堂의 중요성

장준용<sup>1</sup>·강정수<sup>1</sup>·김병수<sup>1</sup>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sup>1</sup>

### The importance of nose, eye, and In-dang(印堂) region in inspecting color diagnosis

Chang, Jun-Young<sup>1</sup>·Kang, Jung-Soo<sup>1</sup>·Kim, Byoung-Soo<sup>1</sup> \*

<sup>1</sup>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re are four kinds of diagnosis methods in oriental medicine, and viewing diagnosis(望診) is the most important method among them. There are two ways in viewing diagnosis. These are viewing shape(觀形) and inspecting color(察色).

Viewing shape diagnosis includes observation on geometric curve that is made by prominence of bones or lump of flesh, and examination on symmetric disparity and balance of vertical length among three vertical section of face. Inspecting color is literally inspecting several specified region of face. By Viewing shape, we can learn about characteristic physical mechanism of individuals, and basic disposition of reaction from inside and outside infinite stimulations.

On the other hand, by inspecting color, we can estimate the very present pathologic and physiologic status of the patient. the estimation is based on principle that inside body changes reveal some reflections on facial skin surface.

When you diagnosis patients with inspecting color method,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color delicately, and to know where to see and what to know from it.

The most important and frequently mentioned regions are myong-dang(明堂), eyes(眼) and In-dang(印堂). Myong-dang(明堂) indicates nose. In-dang(印堂) indicates the space between eyebrows. Unlike myong-dang(印堂) and eyes, In-dang(印堂) is occasionally treated as a trivial region then others. But, from research on classical books of facial examination and consideration of it's locational meanings, we've learned In-dang(印堂) is very important in viewing diagnosis, because this region is crossing of the other two regions and this fact means this region expresses the spiritual status as well as physical status in one region.

## I. 서론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望問聞切 四診 중에서,

望診은 환자를 대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望診은 『靈樞·本臟篇』의 “視其外應, 以知其內臟, 則知所病矣.”<sup>1)</sup>의 원리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bsoo25@dju.kr, Tel : 042-280-2616  
투고일 : 2010년 7월21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10일.

에 입각하여, 밖으로 들어나는 변화를 보고 내부를 유추해내는 것이다.

望診에는 환자의 主觀的인 呼訴가 들어가지 않고, 의사의 기준으로 診斷하므로 비교적 일관된 기준으로 진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환자의 상태와 病理의 파악에 상당히 신뢰성 있는 진단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高度의 修鍊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診斷에 있어 望診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望診은 환자에 대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로써, 望診을 통해 환자의 體質, 즉 生理病理가 일어나는 그릇을 판단하고, 내부 臟器의 현재 상태를 閱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難經』에서도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sup>2)</sup>이라 하여 診斷 중에서 望診을 최고의 경지로 인식하였다.

望診은 크게 둘로 나누어, 환자의 얼굴과 골격, 體刑의 大小長短 등의 모양새를 보는 ‘觀形’과 여러 부위의 色澤과 피부상태를 살피는 ‘察色’으로 볼 수 있다. 옛 법에 骨相은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 골격과 體形을 위주로 보는 觀形으로는 그 사람의 體質이라 할 수 있는 기본 生理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色은 時時刻刻 변하여 氣運의 變化를 반영하므로 察色을 통해서만 지금 現在에 가지고 있는 病의 상태와 그 變化를 判斷할 수 있다. 韓醫學은 환자를 진료할 때 근본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主訴症을 개선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察色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趙<sup>3)</sup>는 望診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色澤이라고 하였고, 『靈樞·五臟生成篇』에는 五色을 좋은 色과 나쁜 色으로 미세한 구분을 두어, 얼굴

에 드러난 色을 통해 五臟의 상태를 가늠하여 生死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4)</sup>. 『望診遵經』<sup>5)</sup>에서는 “脈息共形容合論. 推究無窮. 聲音與氣色交參. 變通不泛.”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도 氣色이 變通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氣色之道精深. 不容率意.”라고 하여, 氣色の 道는 精微롭고 깊으니, 輕率함은 容納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難經』<sup>6)</sup>에서도 “望見其五色 以知其病”이라 하였으며, 『靈樞·五色篇』에서는 “五臟安于胸中, 眞色以致, 病色不見”<sup>7)</sup>이라 하여, 氣色으로 五臟의 安危를 알 수 있다고 하였고, 楊은 “血營于色, 氣充于澤”<sup>8)</sup>이라 하여 氣色은 인체의 氣血이 外部로 表現된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察色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色을 볼 때는 어느 부위의 色을 볼 것인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黃帝內經』에는 望診에 관한 내용이 「本臟篇」, 「五色篇」, 「脈要精微論」, 「五閱五使篇」, 「官能篇」, 「刺熱論」 등에 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부위를 나누어서 五臟 또는 六腑나 全身과 대비시켜 그 해당 臟腑에 국한된 세밀한 診斷을 하는 것과, 巨視的인 觀點에서 現在의 病態를 파악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巨視的인 觀點으로 色을 把握할 때는 明堂, 印堂, 眼의 부위를 위주로 보게 된다.

여러 곳에서 이 부위들을 보는 법과, 각각의 부위가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明堂(코)과 眼에 관한 내용은 매우 많으나, 印堂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적은 편이고, 왜 중요한 부위인지에 대한 설명도 찾기 힘든 편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위의 세 가지 부위의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 보아 결과적으로 印堂이 가지는 意義를 推論해 보았다.

4) 王琦 외.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p.60, 1981.

5) 枉宏. 望診遵經. 서울, 木과 土, p.4,6, 2000.

6) 扁鵲, 前揭書, p. 131.

7) 河北醫學院, 前揭書, p.84.

8)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中). 서울, 法仁文化社, p. 47, 1983.

1) 河北醫學院, 前揭書.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0, 1982.

2) 扁鵲. 難經. 대전, 한의대 학술부 전산자료부, p. 131.

3) 趙憲泳. 通俗韓醫學原論. 서울, 眞玄, p.199, 1980.

## II. 본 론

### 1. 望診의 意義

#### 1) 顔面望診

한의학의 진단방법에는 望診·聞診·問診·切診의 네 종류가 있는데, 『難經·六十一難』에서는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sup>9)</sup>라 하여 望診을 맨 앞에 놓았다. 望聞問切의 순서를 진단의 높은 경지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차례라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의사가 먼저 눈으로 환자를 보고, 다음에 귀로 환자의 목소리나 숨소리를 듣고, 말로써 물어 보고,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脈을 살피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그 중 사물을 인식하는데 시각이 모든 감각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望聞問切 四診중 望診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觀相과 望診이라는 학문은 全身을 대상으로 하지만 顔面이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이는 顔面에 耳目口鼻의 五官이 있어서 개인인의 독특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黃帝內經』에선 望診의 重點이 面部와 眼睛의 五色變化와 浮沈·聚散·澤夭·明暗 등을 살피는 것<sup>11)</sup>이었으며 『難經·六十一難』의 “望而知之者, 望見其五色, 以知其病”<sup>12)</sup>의 五色은 주로 顔面의 察色을 설명하는 것이다.

#### 2) 顔面 察色의 部位

仲景은 일찍이 『傷寒論·序文』에서 당시의 醫家의 무능하고 성의 없는 診斷을 慨嘆하면서 “明堂闕庭, 盡不見察, 所謂窺管而已.”라고 하여, 望診에서 明堂과 闕庭조차도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를 미루어 明堂 주위의 色을 살피는

것이 察色의 기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즉 察色은 醫療를 施行하기 전 診斷에 매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안면에서 그 핵심 장소는 눈과 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顔面 察色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靈樞·五色篇』에 나와 있는데, “明堂者, 鼻也. 闕者, 眉間也. 庭者, 顔也. 蕃者, 頰側也. 蔽者, 耳門也. 其間欲方大, 去之十步, 皆見於外, 如是者壽, 必中百歲.”<sup>13)</sup>라고 하여 顔面 望診에서 나오는 명칭의 각 부위와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다시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라고 하여 인체에 중요한 五臟을 코를 기준으로 顔面 正中線에 根據하여 배치를 하였다.

이와 같이 察色에는 전체적 顔面을 간략하게 중요 부위로 보는 방법과 각 부위를 나누어서 五臟 또는 六腑나 全身과 대비시켜 그 해당 臟腑에 국한된 세밀한 방법,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 중 巨視的이며 전체적인 觀點의 察色은 明堂(코), 印堂, 眼의 부위를 위주로 보게 된다.

### 2. 察色時 望診의 配列

#### 1) 顔面의 수직과 수평 분석

평면상의 어떠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垂直線과 水平線의 조합으로 위치를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Y축과 X축으로 이루어진 直交座標系를 보면, X, Y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곳을 1사분면이라고 부르고 차례로 왼쪽으로 돌아가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불러 구획을 나누게 된다.

강<sup>14)</sup>은 “水平線은 안정감과 靜的 要素가 강함을, 垂直線은 명쾌한 인상과 動的 要素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水平線은 靜的 要素가 강함으로써 動하려는 바탕이 되고 垂直線은 명쾌한 인상과 動的 要素가 강함으로써 靜하려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수직과 수평의 陰陽의 概念을 설명하였다. 韓醫學的인 해

9) 唐湘清 編著. 難經今釋. 臺北市 正中書局. p.229. 1983.

10) 안규범, 윤창렬. 『靈樞五色』에 수록된 顔面望診法의 臨床 適用.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8(1):89-99, 2009.

11) 洪元植, 尹暢烈 編著.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p.119. 2001.

12) 唐湘清, 前掲書, p.229.

13) 河北醫學院, 前掲書, p.84

14) 강경수. 九竅에 대한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4(2):11-21, 1999.

석에 대해서는 『素問·六微旨大論』에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sup>15)</sup>라고 하여 出入은 神機의 作用이며 升降은 氣立의 作用으로 이해되며, 이 문장에 대해 高가 말한 “升降者 上下無方之義 故非升降 則天下之植物無以生長化收藏”<sup>16)</sup>라는 주석을 보면 出入은 주로 神的인 動物의 作用으로 보았으며, 升降은 氣的인 植物의 作用으로 보았다. 또 李梴<sup>17)</sup>은 “凡竅橫者, 皆有出入去來之氣 竅豎者, 皆有陰陽升降之氣往復於中.”라 하여 이들의 구성을 근거로 수평으로 된 七竅 즉 눈과 입은 出入이라 해서 動的인 동물적 속성으로, 수직으로 된 七竅 즉 코와 귀는 升降이라 하여 靜的인 식물적 속성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垂直과 水平은 단순한 이미지로써가 아니라 生理的으로도 실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sup>18)</sup>. 또한 수평은 활동적 陽의 성향을 수직은 靜的인 陰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sup>19)</sup>.

顔面의 耳目口鼻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顔面의 전반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수평적 구분과 수직적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望色에서는 色의 구별과 더불어 관찰하는 부위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떠한 기준으로 구획을 나누어 보는가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望診을 위한 부위의 구분도 역시 垂直과 水平의 구획을 三分法으로 나눌 수 있다.

## 2) 수평적 3분법

『靈樞·師傳篇』에 “上下三等 臟安且良矣<sup>20)</sup>”라 하여 三은 顔面을 세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니 髮際에서 印堂까지가 上部가 되고, 山根에서 鼻

準頭까지가 中部가 되고, 人中에서 턱 부분의 下緣까지가 下部가 된다. 이 세부분의 길이가 균형이 맞는 것이 三等이다<sup>21)</sup>. 이는 觀相家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上中下 ‘三停’이며, 三停이 均等하여야 五臟이 便安하고 만약 三停이 不等하여 長短이 고르지 않으면 內臟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sup>22)</sup>.

三停之說은 相士가 重之하고 醫家は 자못 輕視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三停이 得配하면 五臟六腑가 和安하고 健康하며 富·貴·壽를 누릴 것이다<sup>23)</sup>. 그러나 『靈樞·天年篇』의 “三部三里起<sup>24)</sup>”의 三部는 즉 三停을 이룸이니 즉 額, 鼻, 頰이고, 三里는 卽 明堂三里이니 山根, 年壽, 準頭라<sup>25)</sup> 하여 『內經』에서도 三停의 均衡을 強調하고 있다. 『素問·脈要精微論』의 “上竟上……下竟下<sup>26)</sup>”의 理論으로 미루어 볼 때 顔面의 上中下는 人體의 上中下를 반영하게 된다. 이는 生物全息圖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吳<sup>27)</sup>는 『四診心法』에서 “以上部候頭 下部候足 中部候臟腑 合五色主病之診法也”라고 하여 顔面의 上停에서 頭를 下停에서 足을 中停에서 臟腑를 爲主로 본다 하였다.

그러므로 人體의 上部인 天에 해당하는 頭面部는 上停에서 觀察할 수 있고, 中部인 人에 해당하는 臟腑는 中停에서 觀察할 수 있으며, 下部인 地에 해당하는 足部는 下停에서 觀察할 수 있는 것이다<sup>28)</sup>. 또한 陳修園의 『醫學三字經』<sup>29)</sup>

15)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河南科學技術出版社, p.498. 1982.

16) 高士宗. 前揭書, p.499.

17)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p74-75, 91, 1991.

18) 姜敬수. 前揭書, 14(2):11-21.

19) 수평의 이미지는 형이상학(정신 활동)에, 수직의 이미지는 형이하학(육체 활동)에 배속이 가능하다.

20)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65. 1985.

21) 河北醫學院, 前揭書, p.498.

22) 姜敬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석사학위. pp3-4, 1999.

23) 陸錦川: 中醫望診相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61, 1994.

2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41. 1985.

25) 陸錦川: 中醫望診相法,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68-69, 1994.

26)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59. 1985.

27) 吳謙: 醫宗金鑑 四診心法, 臺南, 世一書局, pp13-14. 1985.

28) 《觀相寶鑑》에는 上停, 中停, 下停을 天才, 人才, 地才라고도 한다. 이는 天地인 三才로써 顔面에 天人地의 區分을 配屬할 수 있는 理論의 根據가 된다.

29) 陳修園. 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에 “額心鼻脾左頰肝右頰肺頤腎”이라는 것을 근거<sup>30)</sup>로 陰陽上下法으로 顔面을 보면 이마를 天인 心肺의 기능으로 보고 地閣을 地인 肝腎의 기능으로 보고, 중간인 中停은 脾胃의 상황을 볼 수 있다.

3) 수직적 3분법

顔面을 内外로 區分하여서 鼻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五臟을 넣고 그 바깥쪽을 六腑에 配屬하며 그 外部를 肢體에 配屬하는 法은 『內經』에서부터 기원하였다. 『靈樞·五色篇』에 “明堂骨高以起, 平以直, 五臟次於中央, 六腑挾其兩側<sup>31)</sup>”이라 하여 臟腑를 面部에 配屬하는 理論을 설명하였으며 張<sup>32)</sup>은 “臟爲陰而主中故 候次於中央也 ……腑爲陽而主外故位次於兩側也”라고 하였으니 분석해보면 五臟은 陰으로 받아들임으로 中央에 主하고, 六腑는 陽으로 發散하므로 兩側に 존재하며, 그 外側은 臟腑가 아닌 肢體가 존재한다. 이런 内外 구분이 가능한 것은 顔面の 正中線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任督脈에 해당하는 顔面の 正中線은 수직적 구分的 제 1 기준선이 된다. 김<sup>33)</sup>은 三才, 四象의 原理로 顔面을 上中下로 三停을 나누고, 옆으로도 左中右 三線으로 나누어 본다고 했다. 그러나 수직으로 中左右를 나누려면 中간의 境界가 필요하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臟腑와 肢體의 구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 境界는 觀骨 안쪽이 되며, 일반적 觀相家가 언급하고 있는 눈동자 正中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은 것이 제2선이 된다. 수직적 분석에서는 正中線(제1선)을 기준으로 가장 外廓에 해당하는 것은 얼굴의 外緣이 된다. 즉 얼굴의 外緣(형태)이 제3선이다.

이상과 같은 얼굴의 수직, 수평적 3분법을 그

p.77. 1978.  
 30)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19. 1985.  
 『素問刺熱論』“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顔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3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77. 1985.  
 32) 馬元臺·張隱庵: 前揭書, p.309.  
 33) 김광호. 前揭書. p140.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과 같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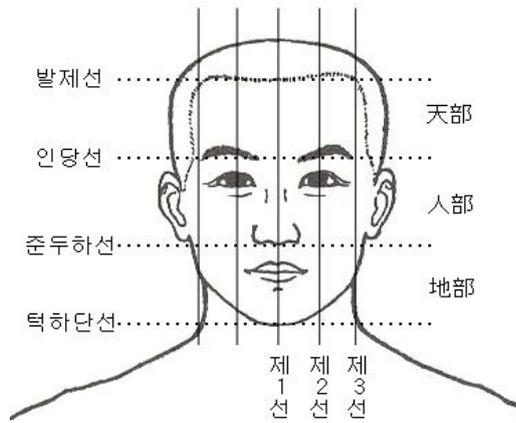


그림. 1 안면의 수직 및 수평 삼분법

3. 望診의 요소

1) 望診의 意義와 重要 部位

『靈樞·五色』에선 臟腑와 人체 各 部位를 顔面部에 配屬하여 그 곳의 色을 관찰함으로써 臟腑와 四肢關節의 病變과 疾病의 상태를 파악하는 方法을 논술하고 있어서 顔面部 望診에 좋은 規범이 된다. 그 내용을 보면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膽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挾大腸者, 腎也. 當腎者, 臍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膺乳也. 挾繩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屈者, 膝臑也. 此五臟六腑肢節之部也.”<sup>35)</sup>라고 하여 정중선의 印堂과 鼻 부위에 五臟이 배열되어 人체 重要 部位는 모두 鼻(明堂)에 소속됨을 보인다. 안<sup>36)</sup>은 이러한 配屬의 실전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에서 여러 책을 종합하여 顔面部 臟腑肢體 配屬圖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림. 2 와 같다. 이 외에도 『經穴學·

34) 원래 제 3선은 안면 외측 윤곽선으로 귀를 포함하는 외측선이다. 그림에서는 곡선을 표현하기 어려워 직선으로 표시한다.  
 35) 河北醫學院. 前揭書, pp93-94.  
 36) 안규범. 前揭書, p.95.

下』에 제시된 面鍼穴位를 보면(그림. 3) 앞의 配屬圖와 유사하여, 面鍼療法이 바로 『靈樞·五色』에 근거한 鍼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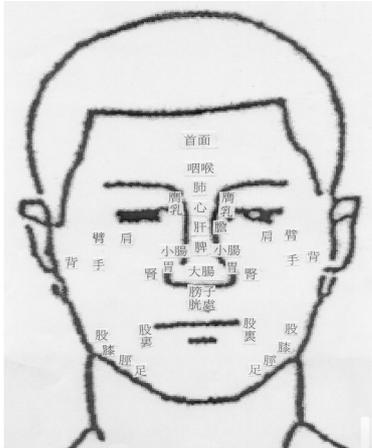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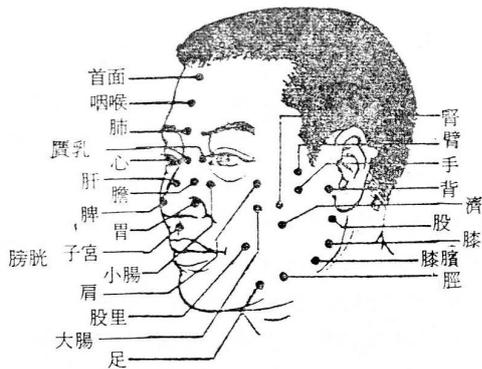


그림. 3

이와 같이 임상적으로 적용되는 『內經』 顏面 望診의 핵심은 明堂(鼻)에 있다. 그렇다면 天地에 日月로 비유되는 眼의 중요성<sup>37)</sup>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內經과 觀相家가 모두 顏面을 관찰할 때 形과 神, 氣를 보아야 한다고 한다<sup>38)</sup>. 이때 形體는 氣血에 속한다면 神은 精神 작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면은 眼을 중시하고, 육체적인 면은 鼻를 중시한 것으로 판

단된다. 韓醫學은 醫學이므로 肉體를 根幹으로 疾病을 치료하는 학문이다<sup>39)</sup>. 따라서 肉體에 根幹을 두었으므로 『靈樞·五色篇』은 顏面의 중심부에 있는 明堂(鼻)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앞 장에서 수평적인 陽的 기준과 수직적인 陰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五官중 수평적인 眼과 수직적인 鼻의 대조는 본 논고에 중요한 내용이다.

## 2) 鼻의 중요성

鼻는 五官중 하나로 냄새를 맡고 呼吸을 主管하는 機關이다. 望診에서는 五嶽의 하나로 中央에 위치하여, 中國의 山 중에 中央에 위치한 嵩山에 비유되며<sup>40)</sup>, 明堂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鼻가 明堂이라는 것은 『靈樞·五色篇』에 “明堂者 鼻也”<sup>41)</sup>라 하여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편에서도 해석이나 원문에서 明堂을 코로 인식하고 있다.

뮈는 자신의 저서 『한자의 옛이야기』<sup>42)</sup>에서 ‘스스로 自’가 원래는 코에서 온 한자라고 하였다. 저자는 갑골문에서의 유사성과 사용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鼻자의 아래 부분인 畀는 自에 음을 나타내는 한자를 붙인 것이라고 하여, 그 形成過程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중국 사람들의 예를 들어, 그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코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는 즉, 面部의 中央에 있는 코를 자신이라는 個體(肉體)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鼻는 五臟 중 肺와 脾에 관련이 있는데, 『素問·金匱眞言論』에는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sup>43)</sup>라 하여 코가 肺의 竅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능상으로 보아 肺가 鼻에 開竅한 것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다. 『丹溪心法附餘』에 “額爲心

37) 조성우 역. 完譯 麻衣相法. 서울, 명문당, p81, 1996.  
38) 조성우 역. 完譯 麻衣相法. 서울, 명문당, pp55-62, 1996.

39) 물론 서양의학에 비해 정신적인 면이 강하나 기본적으로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치료행위를 하는 학문이다.  
40) 李正來. 相學眞傳. 대전, 東洋學術院, p.8, 1996.  
41) 河北醫學院, 前掲書, p.84.  
42) 吳東平. 漢字的古事. 新世界出版社, 2006.  
<http://v.daum.net/link/2684780>  
43) 王琦 외, 前掲書, p.20.

之部, 鼻爲脾之部, 左頰肝之部, 右頰肺之部, 耳爲腎之部”<sup>44</sup>)라고 한 것은 鼻가 面部의 中央에 있으므로, 위치상으로 鼻는 脾에 속한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고, 『素問·刺熱論』에 “脾熱病者, 鼻先赤”<sup>45</sup>) 이라고 한 것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鼻는 五行 배속으로 공간적으로는 土에 속하나 肺의 外候로 기능적으로는 金에 속하고, 형태적으로는 삼각형이라 木에 속하고 顔面에서 가장 높은 산(누웠을 때)으로 火에 속한다.

『靈樞·五閱五使篇』에 “脈出於氣口, 色見於明堂”<sup>46</sup>)이라 하여 明堂에서 五色이 나온다 하였고, 『望診遵經』에 “欲觀氣色 先識明堂”<sup>47</sup>)이라 하였으며, 『靈樞·五色篇』에 “五色獨決於明堂乎”<sup>48</sup>)라 하여 明堂에서만 五色을 결정하는 것인지 묻은 것을 보면, 그만큼 察色에 鼻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육체적인 氣血의 흐름을 살펴보는 핵심장소가 鼻임을 증명한다.

鼻에서 色을 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靈樞·五色篇』에 “沈濁爲內, 浮澤爲外, 黃赤爲風, 青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膿, 赤甚者爲血痛, 甚爲癢, 寒甚爲皮不仁.”라고 하였는데, 원문에는 제시되지 않으나 이<sup>49</sup>)는 앞의 문장 서두에 “明堂之色”이라는 단서를 붙여 해당 察色法이 明堂의 관찰에 비중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靈樞·五色篇』에 “明堂骨高以起平以直, 五臟次于中央, 六腑挾其兩側”<sup>50</sup>)이라 하여, 五臟六腑를 모두 鼻에 配屬시켜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역시, 鼻에서 全身의 生理, 病理 상황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鼻를 脾나 肺에 配屬시켜서 국한된 臟腑의 상황만을 보는 방법과는 달리, 이러한 察色法은 鼻를 통해 全身의 건강여부와 전반적인 病態의 상

황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明堂은 色을 보는 매우 중요한 곳이며, 자기 자신의 身體를 대별하는 곳이므로, 여기서 전체적인 건강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래의 『中醫診斷學』에는 “鼻頭明潤, 是胃氣未傷 或病後胃氣來復의表現, 爲無病或病輕. 鼻頭枯槁, 是脾胃氣衰, 胃氣不能上榮之候, 多屬病重”<sup>51</sup>)이라 하여, 胃氣의 盛衰를 鼻에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病의 輕重을 判斷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실제 임상에서도 鼻의 色이 濁하고 어두우면 消化器系의 순환은 매우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다.

相學에서는 코를 財帛宮이라 하여, 재산의 상태를 살피는 곳인데, 재산이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밀천의 의미도 가지고, 축적되어 있는 可用資産의 의미도 가진다. 즉 形而下學의인 물질을 보는데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韓醫學에서 몸(身體)을 보는데 鼻를 중심으로 보는 것과 의미가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를 보고 인체 육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면보다는 實質의이고 物質의인 측면의 盛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眼의 중요성

眼은 相學과 望診에 매우 중요시 되는 부위인데, 相學에서 眼의 중요성이 다른 곳을 다 합친 것보다도 높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觀相寶鑑』에서는 눈은 얼굴전체의 50%의 운을 지배한다<sup>52</sup>)고까지 하였다.

望診에 있어서 眼의 중요성에 대해, 『靈樞·小鍼解篇』에서는 “觀其色, 察其目, 知其散復, 一其形, 聽其動靜者, 言上工知相五色於目.”<sup>53</sup>)이라고 하고, 또 “所以察其目者, 五臟使五色循明.”라고

44)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49-50, 1989.

45) 王琦 외, 前掲書, p.160.

46) 河北醫學院, 前掲書, p.537.

47) 枉宏, 前掲書, p.7.

48) 河北醫學院, 前掲書, p.84.

49) 李鐘律. 鼻의 氣色과 疾病과의 關係. 大韓外官科學會誌, 9(1):67, 1996.

50) 河北醫學院, 前掲書, p.84.

51) 程紹恩 외. 中醫診斷學.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p.24, 1984.

52) 金哲眼. 觀相寶鑑, 서울, 大造社, p.108.

53) 河北醫學院, 前掲書, p.74.

하여, 눈에서 색을 보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靈樞·邪客篇』에는 “天有日月, 人有兩目”<sup>54)</sup>이라고 하여, 눈은 하늘에서는 日月과 같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 『東醫寶鑑』에는 “切脈動靜 而視精明 察五色 觀五藏有餘不足 六府強弱 形之盛衰 以此參伍 決死生之分 註曰 精明 在明堂左右 兩目內眥也.”<sup>55)</sup> 라 하여, 눈을 살펴서 결국 生死의 判斷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눈은 肝에 일반적으로 배속하는데, 『素問·陰陽應象大論』에 “肝主目...在竅爲目”<sup>56)</sup>이라고 하였고, 「金匱真言論」에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sup>57)</sup>이라고 하여, 肝이 눈을 주함을 말했다. 또한, 「五臟生成篇」에는 “故人臥, 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sup>58)</sup>라고 하여 사람이 보는 것은 肝이 血을 받아야 가능하고, 잘 때는 血이 肝으로 돌아가서 자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難經』에도 肝과 눈의 관계가 나오는데, “肝氣通於目, 目和則知白黑矣.”<sup>59)</sup> 라고 하여, 事物을 보고, 黑白을 구분하는 것도 肝氣가 통해 눈이 調和로워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직접적인 五行配屬 관계로 연관지어진 肝뿐만 아니라 다른 五臟도 모두 눈과 관련을 맺고 있다. 김<sup>60)</sup>은 相法에 근거해서 左右眼을 丙丁火에 배치하였다. 이것은 눈은 精神의 발현처이며 동물들의 눈은 밤에도 빛나는 이유로 설명이 된다. 『東醫寶鑑』에 “心合脈. 諸脈者 皆屬於目”<sup>61)</sup>라고 하였고, 『靈樞·大惑論』에 “目者, 心使也”라고 하였으며 『素問·解精微論』에도 “夫心者, 五臟之專精也, 目者, 其竅也.”<sup>62)</sup>라고 하여, 心이 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脾에 관해서는 『東醫寶鑑』에 “是以 五藏六府 十二經脉 三百六十五絡 其血氣 皆稟受於

脾土 上貫於目 而爲明 故脾虛則 五藏之精氣 皆失所使 不能歸明於目矣”<sup>63)</sup>라고 하여, 눈으로 가는 모든 血氣가 脾土의 作用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脾土가 毀損되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였다. 또한, “因心事煩冗 飲食失節 勞役過度 故脾胃虛弱 心火太盛 則百脉沸騰 血脉逆行 邪害孔竅 所謂天明 則日月不明是也. 脾者 諸陰之首也 目者 血脉之宗也 故脾虛則 五藏之精氣 皆失所司 不能歸明於目矣”<sup>64)</sup>라고 하여, 勞倦七傷, 飲食傷으로 인해 脾虛하고 心이 太盛하면 百脈이 끊고, 血脈이 逆行하는데, 이처럼 脾虛하면 五臟의 精氣가 눈으로 돌아가 榮養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大惑論』에 “五臟六腑之精氣, 皆上注於目, 而爲之精. 精之窠爲眼”<sup>65)</sup>라 하여, 五臟六腑의 精氣가 다 눈으로 올라가므로, 눈은 精氣가 모이는 구덩이와 같다고 하였고, 『靈樞·口問篇』에는 “目者 宗脈<sup>66)</sup>之所聚也”<sup>67)</sup>라고 하였다. 결국, 五臟의 精氣가 모두 눈으로 올라오므로, 눈을 細分化해서 보면 五臟이 모두 配屬되어 있다. 예를 들면, 『靈樞·大惑論』에 “精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窠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sup>68)</sup>라 한 것과, 『東醫寶鑑』의 “首尾赤眥屬心, 滿眼白睛屬肺, 其烏睛圓大屬肝, 其上下肉胞屬脾, 而中間黑瞳一點如添者, 腎實主之”<sup>69)</sup>라 한 것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란 표현처럼 五藏神의 정신적인 부분과 뇌 신경 등의 陽的 部分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內經』에서 논하고 있는 五臟의 精氣라는 것도 물질적인 부분 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눈에서 색을 살펴는 방법은 『靈樞·論疾診尺

54) 河北醫學院, 前掲書, p.270.

55)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p.510. 2002.

56) 王琦 외, 前掲書, p.27.

57) 王琦 외, 前掲書, p.20.

58) 王琦 외, 前掲書, p.60.

59) 扁鵲, 前掲書, p.82.

60) 김광호, 前掲書, p.139.

61) 許浚, 前掲書, p. 524.

62) 王琦 외, 前掲書, p.482.

63) 許浚, 前掲書, p.521.

64) 許浚, 前掲書, p.524.

65) 河北醫學院, 前掲書, p.435.

66) 여기서 宗脈은 주석에 “눈을 지나는 手足의 六陽脈과 足少陰, 足厥陰脈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67) 河北醫學院, 前掲書, p.478.

68) 河北醫學院, 前掲書, pp.435-436.

69) 許浚, 前掲書, p.523.

論』에서는 “目赤色者, 病在心, 白在肺, 青在肝, 黃在脾, 黑在腎, 黃色不可名者, 病在胸中.”<sup>70)</sup>이라 하여 일반적인 五行配屬에 입각하여 살피는 방법이 있고, 『素問·五臟生成篇』에서 “凡相五色之奇脈, 面黃目青, 面黃目赤, 面黃目白, 面黃目黑者, 皆不死也. 面青目赤, 面赤目白, 面青目黑, 面黑目白, 面赤目青, 皆死也.”<sup>71)</sup>라고 하여 눈과 얼굴색을 비교하여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눈은 이처럼 五臟의 精氣를 보는데, 사실상 이는 精神(營衛)作用을 본다는 의미이다. 『觀相寶鑑』에 “눈은 마음의 창문이므로 마음의 善惡을 안다”고 했고, 또, “정신병은 특히 눈을 봐서 판단할 수 있다.”<sup>72)</sup>고 하여, 精神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였다. 『靈樞·大惑論』에도 “目者, 五臟六腑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 故神勞則魂魄散, 志意亂,”라 하여, 눈이 神氣의 所生이며, 營衛魂魄의 榮養을 항상 받는다고 하였고, 또, “目者, 心使也, 心者, 神之舍也, 故精神亂而不轉, 卒然見非常處, 精神魂魄, 散不相得, 故曰惑也.”<sup>73)</sup>라 하여 精神魂魄과 눈의 상관관계를 부연 설명하였다. 이 밖에 『素問·解精微論』에서는 “華色者, 其榮也. 是以人有德也, 則氣和於目, 有亡, 憂知於色.”라 하여, 精神이 바르면 눈이 조화롭고, 精神이 망하면 우환이 깃든 색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片은 五色에 관한 논문<sup>74)</sup>에서 『素問·六節臟象論』의 “心者, 生之本, 神之變也, 其華在面”<sup>75)</sup>을 해석하여, 神의 有無를 살피기 위하여 눈을 보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설명하였다.

相學에서도 눈은 精神이 모이는 곳이고 先天의인 精神이 發露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눈을 통하여 生死와 存亡, 貴賤과 夭壽, 모든 일의吉凶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76)</sup>

김77)은 “눈은 神氣의 표현이며, 精氣의 집적된 결정체이다. 이에 인체 臟器와 運命의 총체적인 관건을 지고 있다. 아무리 外廓이 잘 되었다 해도 달과 태양이 잘못되면 만물이 소생할 수 없듯이 눈은 매우 중요하다. 눈은 神氣가 뚜렷하고 맑고 영롱해야 한다.”라고 하여, 눈이 望診에 있어 매우 중요함과 함께, 특히 神氣에 대한 診斷을 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4. 肉體와 精神의 합일점 - 印堂

##### 1) 印堂의 부위

印堂은 양 눈썹사이를 말한다. 이는 곧, 세로로 뻗어 있는 코와 횡으로 배열되어 있는 눈썹의 교차점으로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이 합일되는 자리이다. 활동을 위주로 하는 눈은 動的으로 形而上學의 의미를 갖게 되어 정신의 發揮處로 본다면, 靜的인 受動性을 위주로 하는 코는 形而下學의 의미를 갖게 된다. 부연하면, 印堂은 精神의 중심점과 肉體의 중심점이 交叉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즉, 코는 실질 장기인 五臟의 盛衰를 나타내고, 面部의 中央에 자리 잡아서 自我의 象徴物이 되며, 相學에서는 재산을 나타내는 財帛宮이 되므로, 精神과 肉體의 관계에서는 육체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에 가깝다.

이에 비해, 눈은 마음의 창으로, 精氣의 集約體이며, 神氣가 모인 곳으로, 相學에서 보는 神色도 여기서 판단하므로, 코에 비해서는 精神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눈을 위에서 보호하고 있는 눈썹도 精神常態를 나타내는 外候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두 부위의 교차점이 印堂이므로, 이러한 위치적 특징을 근거로 印堂은 肉體와 精神의 상황이 모두 나타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人體는 肉體와 精神이 합해져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서로간에 늘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印堂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둘의 교차점에 있어서 調和가

70) 河北醫學院, 前掲書, p.320.

71) 王琦 외, 前掲書, p.61.

72) 金哲眼, 前掲書, p.108.

73) 河北醫學院, 前掲書, p.436.

74) 片秀範, 內徑 중 五色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2(2):10. 2004.

75) 王琦 외, 前掲書, p.54.

76) 李正來, 東洋醫藥原理. 서울, 은누리출판사, p.117.

77) 金광호, 前掲書, p63.

잘 되고 있는가의 여부도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2) 印堂의 의미

印堂은 相學에서 命宮이라고 하는 곳으로, 양 눈썹사이를 뜻한다. 운명의 強弱과 厚朴을 볼 수 있는 곳이며, 또한, 氣色이 모이는 곳으로서 精神이 命宮에 모여서 발현된다 하였다<sup>78)</sup>. 『觀相寶鑑』에서는 命宮을 天命과 職業을 보는 곳이라 하였다<sup>79)</sup>.

나이에 따른 배속을 보면, 30세를 전후한 때의 일들을 나타내는데, 서른 살은 而立이니, 이것은 自立한다는 뜻으로, 學問이나 見識이 一家를 이루어 道德 上으로 흔들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즉, 이때는 한 사람의 人格體로서 가정과 사회의 기반을 닦는 나이로, 한사람의 생애 중 매우 중요한 나이라고 할 수 있다.

印堂의 形象을 볼 때는 廣狹과 주름, 突出이나 陷沒 與否와 皮膚의 麤密을 본다. 양 눈썹 사이의 거리는 대체로 자기의 손가락 두 개를 합친 폭정도가 적당하며, 命宮의 色은 明潤해야 하고, 살결이 고와야 좋은 것이며, 주름이나 흠이 있으면 좋지 않다.<sup>80)</sup> 命宮이 圓滿하여, 밝기가 거울 같고, 山根이 끊어지지 않고 印堂까지 연한 사람은 무슨 학문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sup>81)</sup>

相學에서 印堂은 주로, 先天의 運命, 學殖, 성격, 직업 등을 판단한다. 印堂이 깨끗한 사람은 先天적으로 좋은 運命을 타고난 사람이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不運한 사람이다. 또한, 이곳은 腦髓의 第一線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곳이 깨끗하면 腦髓 역시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82)</sup>

印堂 部位는 인도의학의 차크라로 설명하면, 일곱 개의 차크라 중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인 아즈나 차크라에 해당한다. 차크라의 의식, 무의식을 망라하여 신체 내에서 작용하는 생명 에너지의 중심센터로 프라나 에너지의 일곱 중심점의

다. 아즈나 차크라의 ‘지혜의 빛’으로 알려져 있다. 수련을 통해 아즈나 차크라에서는 사트(진실)을 발전시키게 된다<sup>83)</sup>.

이처럼 命宮은 精氣神이 모이는 곳이므로, 喜怒哀樂과 憂愁思慮가 모두 이 命宮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氣色을 살필 때는 印堂과 準頭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였다.<sup>84)</sup>

印堂은 이마와 明堂을 연결하는 곳이다. 이마는 앞서 수평적 3분법에서 보았듯이 하늘을 뜻하며, 해석상으로는 하늘의 도움 또는 조상의 음덕을 말한다. 明堂은 코로 일반적으로 본인의 肉體로 지정하며 ‘뭍’ 그 자체이다. 사람은 천지간에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望診에 있어서 이 하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印堂이다. 印堂이 이마와 明堂, 즉, 하늘과 肉體를 연결하고 하늘 기운을 받아들이는 清濁의 통로인 것이다. 印堂이 濁하거나 어둡거나 가로 줄이 있으면 天氣와의 호흡이 불가능해서 人事로는 운명적 불행이 닥치고 醫學으로는 外部와 기능하는 心肺機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印堂은 인체에 가장 중요한 부위이며, 精神과 肉滯의 合一된 제3의 눈<sup>85)</sup>이라는 설명까지 나오게 된다. 따라서 印堂 부위는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3) 印堂에 해당하는 가슴

印堂은 이마와 코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코는 明堂으로 五臟이 배속되어 있고, 이마는 顏面을 삼등분하여 天人地에 配屬할 때 하늘에 配屬되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印堂은 五臟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

두 번째로, 印堂은 人體의 配屬에서 가슴에 해당한다. 가슴은 호흡을 하는 곳이고, 음식물이 통과하는 곳이다. 이곳이 잘 못 되면 바로 큰 병이 되므로, 凶자를 붙여 胸자를 만들었다.<sup>86)</sup>

가슴에 있는 任脈의 穴名을 살펴 보면, 中庭

78) 김광호. 前揭書, p.47.

79) 金哲眼. 前揭書, p.53.

80) 김광호. 前揭書, p.48.

81) 金哲眼. 前揭書, p.54.

82) 金哲眼. 前揭書, pp.54-55.

83) 하리쉬 요하리. 차크라. 서울, 하남출판사, pp.192-199, 263-264. 1996.

84) 金哲眼. 前揭書, p.55.

85) 하리쉬 요하리. 前揭書, p.201.

86) 許浚, 前揭書, p.660.

은 朝廷의 庭園을 뜻하고, 膈中은 心臟의 중심<sup>87)</sup>에 해당하는 곳이며, 玉堂은 心臟의 宮殿이라는 뜻이 되고, 紫宮도 帝王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된다<sup>88)</sup>. 이상의 4穴은 朝廷의 뜰부터 帝王이 머무는 궁까지를 묘사하여, 하나의 宮殿의 모양과 대비를 이룬다. 이것은 心이 君主之官으로, 가슴은 心의 거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穴 中華蓋는 우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肺가 華蓋에 많이 비유되어 왔으므로 肺의 上部에서 덮여씌우는 위치에 있다는 뜻도 된다.<sup>89)</sup> 그리고, 華蓋는 별자리에도 있는데, 紫微垣에 있는 별자리로, 文運을 主管하는데, 太帝의 자리를 덮고 가리는 데 쓰는 것이라 했다<sup>90)</sup>. 마지막 穴인 璇璣는 일종의 寶玉을 가리키는 말로, 대단히 高貴하고 아름다운 돌이라는 뜻이다<sup>91)</sup>. 이 穴 역시 천문학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璇璣는 北斗七星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魁에 해당하는 부위를 이르는 것으로 北斗七星과 같은 의미로도 쓰였다<sup>92)</sup>. 北斗星은 七政의 축이 되고 陰陽의 本元으로, 하늘의 한 가운데를 運行하여 四方을 制御함으로써, 四時를 바르게 세우고 五行을 均一하게 한다. 또 임금의 象으로 號令하는 主體이고 帝王의 수레가 된다고 했다.<sup>93)</sup>

이와 같이 가슴의 穴名은 모두 궁궐과 帝王, 그리고 天文의 별자리와 관계된 이름들이며, 이것을 통해 가슴을 뜻하는 부위인 印堂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類推할 수 있다.

### III. 고찰

望診은 四診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하게 되는 診察이며, 매우 중요한 診斷法이다. 望診은 觀刑과 察色으로 나뉘는데, 이 중 察色은 時時刻刻

變化하는 病症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법이다.

察色을 할 때에 가장 중요시 되는 부위는 明堂, 眼, 印堂이다. 이 중에서 明堂은 面部의 中央에 자리 잡아서 相學과 望診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곳이다. 明堂은 靜인 구조로 되어 있고, 中央線을 따라 五臟이 配屬되어, 精神과 肉體의 관계에서 肉體의인 상태를 나타내는 곳이다.

眼은 바로 하늘에서는 日月과 같은 곳이라 하여, 다른 모든 부분을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위이다. 눈은 精의 集合體로, 精氣의 상태를 보는데, 이는 사실상 精神作用을 본다는 의미이다. 望診과 相學의 최고 단계인 神氣를 보는 것도 눈을 볼 줄 알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眼은 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精神에 대한 診斷을 할 수 있는 곳이다.

印堂은 五臟(明堂)과 天部(이마)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이고, 인체 配屬 上 心臟의 居處인 가슴에 해당하며, 相學에서는 命宮이라 하여 일생의 吉凶과 運命의 強弱을 보는 곳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에 더해, 印堂은 肉體의인 상태를 대표하는 明堂과 精神的인 면을 나타내는 눈(눈썹)의 교차점이 되어 精神과 肉體의 合一點이 된다. 그러므로 精神과 肉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 둘 사이의 調和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 되므로 항상 맑고 깨끗한 것이 좋다.

인간은 언제나 肉體와 精神이 각각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각각의 發揮處인 明堂과 眼이 望診에 중요한 곳임은 누누이 인식되어 왔으나, 이들의 교차점인 印堂의 중요성은 輕視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印堂이 바로 精神과 肉體의 調和와 合一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임을 밝히는 바이다.

### IV. 참고문헌

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87) 膈은 心臟下의 膈膜이다.-경혈학총서

88)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pp.701-705. 1995.

89) 安榮基. 前掲書, p.706.

90) 김수길. 天文類抄. 서울, 대유학당, p.276. 1999.

91) 安榮基. 前掲書, p.708.

92) 김수길. 前掲書, p.289.

93) 김수길. 前掲書, p.286.

2. 扁鵲. 難經. 대전, 한의대 학술부 전산자료부.
3. 趙憲泳. 通俗韓醫學原論. 서울, 眞玄, 1980.
4. 王琦 외.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5. 枉宏. 望診遵經, 서울, 木과 土, 2000.
6. 洪元植. 周易과 中國醫學. 서울, 法仁文化社, 1983.
7. 唐湘清 編著. 難經今釋. 臺北市 正中書局. 1983.
8. 안규범, 윤창렬. 『靈樞·五色』에 수록된 顔面望診法の 臨床 適用.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9.
9. 洪元植, 尹暢烈 編著.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一中社. 2001.
10. 강정수. 九竅에 대한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99.
11.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12. 李槇.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1.
13.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14. 김광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碩士學位. 1999.
15. 李正來. 相學眞傳. 대전, 東洋學術院, 1996.
16. 吳東平. 漢字的古事. 新世界出版社. 2006.
17.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8. 李鐘律. 鼻의 氣色과 疾病과의 關係. 大韓外官科學會誌, 1996.
19. 程紹恩 外. 中醫診斷學.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1984.
20. 金哲眼. 觀相寶鑑, 서울, 大造社.
21. 許浚. 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2002.
22. 片秀範. 內徑 중 五色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4.
23. 李正來. 東洋醫藥原理. 서울, 온누리출판사.
24. 하리쉬 요하리. 차크라. 서울, 하남출판사, 1996.
25. 安榮基. 經穴學叢書. 서울, 成輔社, 1995.
26. 김수길. 天文類抄. 서울, 대유학당, 1999.
27.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中). 서울, 法仁文化社, 1983.